[카드뉴스] Intelligent Automation - RPA의 미래

RPA 도입은 수많은 자동화 기회를 창출해 왔고 현재에도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RPA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나 다른 디지털 자동화 툴을 통해 기존 시스템 환경의 변수와 관계없이 모든 프로세스에 RPA를 적용하여 end-to-end 프로세스의 변환 및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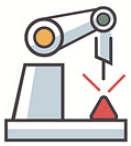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를 도입하면
인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요즘 기업경영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질문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 ‘로봇프로세스 자동화’.

**RPA는 오늘도 단순업무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RPA 한계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시스템, 스프레드 시트, 웹 등)에 대해서만 프로세스를 다룰 수 있다.
"Decision tree"나 정형화된 Rule 기반의 간단한 의사 결정만 가능하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나 **광학적 문자 판독**(OCR),
Digital Form, Workflow, 챗봇,
Human-in-the-loop 프로세스 적용

RPA와 AI는 상호 보완적인 솔루션



Digital Enablers
- 프로세스의 시작 단계부터 디지털화 수행

+

RPA
- 프로세스 上 전-후 관계에서 수작업 emulate 化

+

AI Enablers
- AI 기술 적용으로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 수행

RPA+

+

Big AI
- 패턴 및 인사이트 식별로 의사결정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 마련

Human-in-the-loop &프로세스 관리
- 로봇-사용자 間 업무 상호작용으로 사용자 스킬 및 경험 최적화 실현

Intelligent Automation의 3단계

1

RPA

정의된 업무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반복성이 높은 작업에 대한 자동화를 수행하는 가상인력

- 다수의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입력 업무
- KYC를 위한 다수의 데이터 소스 검토
- 여러 국가를 위한 리포팅 및 통합 요약본 작성

Intelligent Automation의 3단계

2

RPA+

추가 기능과 결합된 RPA로 RPA에 디지털 어댑터 결합으로 자동화 범위 확장

- **웹/모바일 self-service digital 기반 동적 형태 구현**
  : 우편/유선을 통한 업무형태 개선
- **챗봇/음성 인식 기술 통합으로 실시간 self-service 기반 마련**
  : “계좌에 얼마가 있나요”와 같은 질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의사결정형 임직원용 디지털 포털**
  : 규정 內 자동 승인 및 예외사항에 대한 알림 자동화

Intelligent Automation의 3단계

3

Big AI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 예측하여 의사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간 상호작용 모방

AA(Advanced Analytics), 빅 데이터, 의사결정 엔진, 머신러닝 & 딥러닝 알고리즘의 활용이 필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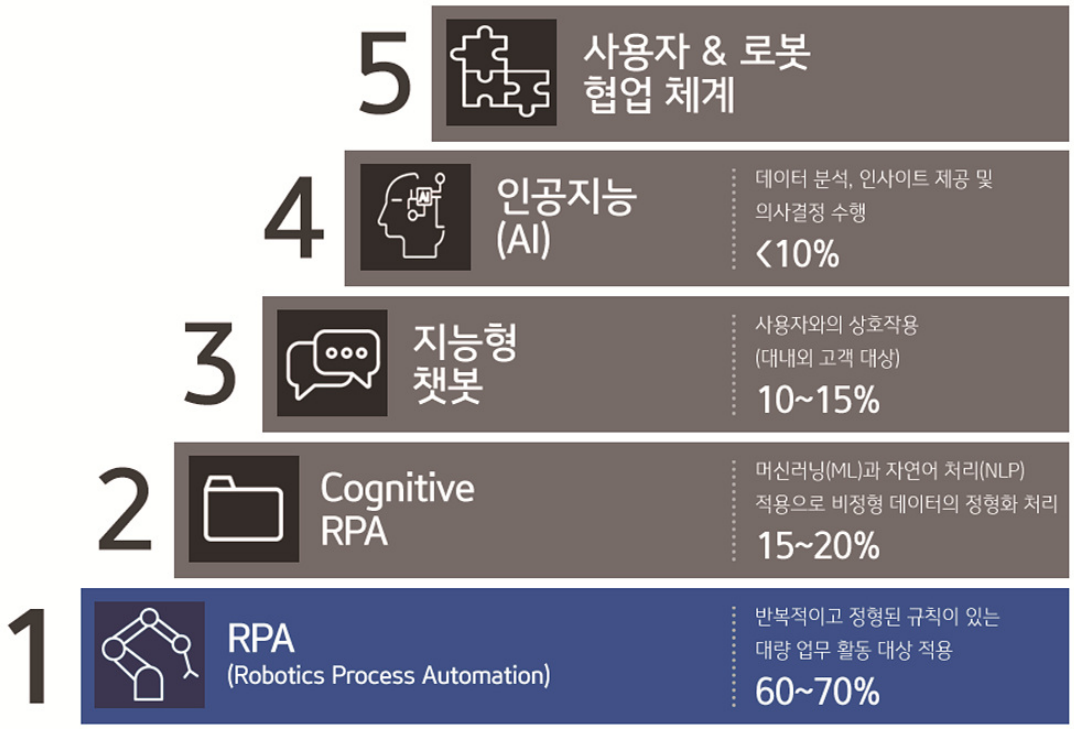
- 머신러닝 기반 이탈 예측
- 전문 시스템 기반 상품 추천 의사결정 지원(로보 어드바이저)
- 머신러닝 & AA 결합으로 사기 패턴 적발
- 머신러닝 기반 대출심사 의사결정
- 전문 시스템 또는 머신러닝 기반 중대 질병 보험 청구에 대한 의료 문제 의사결정

koscom newsroom

성공적인 지능형 자동화 구현을 위한 Top 7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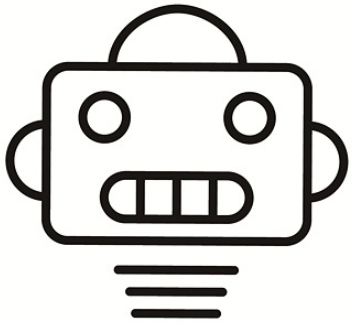
Intelligent Automation의 5단계 Journey



*Percentage : 기존 프로세스의 영향도

향후 전망

- 자동화 시장이 2020년까지 19 Bil USD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 5% 미만의 회사만 규모의 RPA를 구축했으나 향후 12~18개월 이내 40%의 회사가 규모의 RPA 구축을 계획 중 (Everest Research, 2018)
- RPA 툴에 이미 투자를 진행한 회사들은 향후 12개월 이내 로봇의 수를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Horses for Sources, 2018)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